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9월 미 일자리 증가 8만9천개, 2021년 이래 가장 적어, ADP

#### [연방의회]

- WSJ: 하원 의장 추출된 후 향후 전망은?

#### [미국 금융]

- Bloomberg: 30년 고정 모기지율 2000년 이래 7.5% 상회
- WSJ: 장기 금리 상승으로 미 소프트랜딩 기대 줄어

#### [COVID-19]

- CNBC: 모더나의 코로나 독감 종합 백신, 최종 시험 단계

#### [학자금 대출]

- Bloomberg: 학자금 대출 상황 시작되자 바이든 90억불 부채 취소

#### [세계 경제]

- Bloomberg: IMF, “중앙은행들 소통 노력이 경제 연착륙 가능성 높여”

#### [자동차 파업]

- Bloomberg: GM, 파업 충격 완화하기 위해 60억 불 조달 예정

#### [인공지능]

- CNN Business: 소프트뱅크 손정의, “인공 일반지능(AGI), 10년 아래 도래”
- Bloomberg: 메타, 광고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생성형 AI 도구 출시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경제 리스크 불구, 기업들이 직원들 붙잡고 있는 이유
- Bloomberg: Prada, 달(Moon)에 가다: 새로운 우주복을 위해 NASA와 협력

#### [보고서]

- 맥킨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Firms Added 89,000 Jobs, Fewest Since Early 2021 in ADP Data**

#### **9월 미 일자리 증가 8만9천개, 2021년 이래 가장 적어, ADP**

- 9월들어 미국 기업들이 2021년 초 이래 가장 적은 일자리를 추가했다. 봉급 증가세도 둔화되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 ADP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민간 일자리가 8월에 18만개 늘어난 데 반해 9월에는 8만9천개로 증가세가 확 줄었다.
- 레저, 접객 업종이 일자리 상승을 주도해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생산직, 무역, 운송직의 감소를 상쇄했다.

- 이번 발표를 통해 노동시장이 완화된다는 신호가 더 확인되었고, 일부 고용주들은 인플레이와 차입 비용 상승 때문에 고용을 줄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 [연방의회]

#### **WSJ: What Happens Next in the House Speaker Race** 하원 의장 추출된 후 향후 전망은?

- 요지: Kevin McCarthy이 하원에서 투표에 따른 해임에 따라 공화당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빠르면 일주일 남겨두고 있다.
- 공화당 후보들이 다음주 화요일에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다음날 투표를 해서 새 하원의장을 뽑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 셋다운 관련 11월 시한 이전에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노력 등 하원의 업무가 일시 정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 McCarthy 하원의장은 연방정부 셋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을 처리한지 불구 며칠 만에 당내 강경파와의 9개월간 갈등 끝에 216표대 210표차로 하원의장직에서 해임됐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Tops 7.5% for First Time Since 2000** 30년 고정 모기지율 2000년 이래 7.5% 상회

- 지난주 미 모기지 금리가 200년 11월이후 처음으로 7.5%를 상회했으며 주택 구입 신청도 1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9월 29일 끝난 주에 계약되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12베이스스 포인트 상승해 7.53%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 신청 지수는 5.7% 떨어진 136.6으로 지난 1995년 이래 가장 낮았다.
- 채용자 활동을 비롯한 전체 모기지 신청 지표도 6% 하락해 지난 1996년 이래 가장 약했다.

Bloomberg 기사

#### **WSJ: Bond Selloff Threatens Hopes for Economy's Soft Landing**

## 장기 금리 상승으로 미 소프트랜딩 기대 줄어

- 요지: 성장 전망과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 장기 금리가 16년만에 급등해 미 경제 소프트랜딩을 위협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의 정확한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어제 화요일 0.119% 포인트 상승한 4.801%로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최근의 주가 하락과 달러 강세와 함께 차입 비용 상승이 지속된다면 내년에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최근의 빠른 상승은 금융 시장 붕괴 리스크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장 큰 원인은 미 경제 성장 개선에 대한 기대와 연방정부 적자가 투자자들의 정부 부채를 흡수할 능력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인 이유 일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 [COVID-19]

#### **CNBC: Moderna combination Covid, flu vaccine moves to final stage trial after positive data**

##### **모더나의 코로나 독감 종합 백신, 최종 시험 단계**

- 오늘 수요일 모더나가 코로나와 독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혼합 백신이 최종 시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 발표이다.
- 모더나는 자사의 mRNA-1083 백신이 2025년 안에 감독기관으로부터 사용 허가받길 기대하고 있다.
- 모더나와 다른 화이자 같은 다른 백신 기업들은 이번의 혼합 백신이 매년 발생하는 호흡기성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CNBC 기사

### [학자금 대출]

#### **Bloomberg: As Student Loan Payments Resume, Biden Cancels \$9 Billion in Debt**

##### **학자금 대출 상황 시작되자 바이든 90억불 부채 취소**

-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원이 그의 학자금 대출 지원 방안을 봉쇄하고 수백만 미국인들이 대출 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출자를 돕기 위해 9억달러의 학생 융자 부채들 취소하고 있다.

- 빠르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대상자인 공무원, 장애인, 저소득 채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총 12만5천명의 대출자를 돕게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Bloomberg 기사

### [세계 경제]

#### **Bloomberg: 'Soft Landing' Prospects Improve With Better Central-Bank Messaging, IMF Says**

#### **IMF, “중앙은행들 소통 노력이 경제 연착륙 가능성 높여”**

- IMF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경기 불황을 억제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 오늘 수요일 워싱턴에서 공개된 IMF의 ‘앞으로 다가올 세계 전망’에서, 연구자들은 중앙은행들의 메시지가 가정과 기업이 이전의 소비자 물가 상승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 그들은 “ 기대할수 있는 소통 채널은 중요하며, 통화 정책의 틀과 중앙은행의 소통 전략의 향상이 더 적은 비용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빠르게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다. 즉,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일부 인사들은 대중에 더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주에 연준은 인스타그램과 Thread에서 활동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했다.

Bloomberg 기사

### [자동차 파업]

#### **Bloomberg: GM Prepares \$6 Billion Credit Line to Cushion Strike Costs**

#### **GM, 파업 충격 완화하기 위해 60억 불 조달 예정**

- GM이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60억 달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GM이 이미 2천억 달러의 피해를 낳고 있는 자사의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 이런 사실은 오늘 수요일 아침 증권거래 신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 기업의 대변인은 GM은 유동성을 위해 내년 10월 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364일 회전 신용을 원한다고 말했다.
- 6월 30일 자로 GM의 총 유동자산은 3백8십 9억달러이므로,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GM의 이런 움직임은 장기간의 UAW(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인공지능]

**CNN Business: SoftBank CEO say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will come within 10 years****소프트뱅크 손정의, “인공 일반지능(AGI), 10년 아래 도래”**

- 소프트뱅크 손정의 대표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른바 인공 일반지능(AGI)이 10년안에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그는 소프트뱅크 월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AGI가 모든 인간 지능의 총합보다 10배 이상 지능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이미 생성형 AI가 일부 분야에서 인간 지능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AI의 스스로의 학습, 스스로의 훈련, 스스로의 추론 능력을 지적했다.
- 그는 컨퍼런스에서 인공 슈퍼 지능이란 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 이는 20년 안에 실현되며 인간 지능의 1만배 이상 능가할 것이라는 것.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Meta Expands Generative AI Tools to Boost Effectiveness of Ads****메타, 광고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생성형 AI 도구 출시**

- 메타 플랫폼이 광고 활동을 위해 새로운 생성형 AI 도구를 출시한다. 이를 통해 마케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 생성형 AI를 사용함으로써, 마케터들은 상품에 쓰일 배경 사진을 만들어 내거나 다양한 광고 문구를 생성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적합한 사이즈로 광고 크기를 재조정한다.
- 오늘 수요일 기업 관계자는 이런 새로운 기능은 Meta's Ads Manager에 속한 마케터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서야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Despite Economic Risks, Companies Are Hanging On to the Workers They Have****경제 리스크 불구, 기업들이 직원들 붙잡고 있는 이유**

- 어제 화요일, 연방 노동부는 8월 말의 일자리 수가 9백60만개로 조정됐으며, 이는 7월의 8백90만개보다 상승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는 대략 1.5개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팬데믹 이전의 1.2와 비교된다.

-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시장이 식고 있으나, 아직은 꽤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 또한 구직자 수가 계속해서 퇴직자의 수를 앞지르고며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는 있다.
- 그러나,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수가 여전히 기록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새롭고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있는 걸 의미한다.
- 계속되고 있는 파업, 대학생 대출 상환으로 인한 소비 감소, 정부의 헛다운 그리고 높은 금리의 이유로 고용자는 채용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있다.
- 이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인력 부족에 어려워 하고 있다는 것과 직원을 해고하면 대체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상황 때 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 **Bloomberg: Prada to the Moon: Fashion Brand to Work on Next-Generation Spacesuits for NASA** Prada, 달(Moon)에 가다: 새로운 우주복을 위해 NASA와 협력

- 오늘 수요일,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인 프라다가 2025년 예정인 NASA의 아르테미스 3 임무에 사용될 달 탐사용 우주복을 만들기 위해 Axiom Space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 아르테미스 3은 1972년 아폴로 17 이후로 첫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한 명의 여성 승무원을 포함한다.
- 프라다 SPA 소속인 기술자들이 Axiom 팀과 디자인 처리 과정에서 협력할 것이며, 우주와 달의 독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와 디자인 특징에 대한 방법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맥킨지 보고서: Strategies for Asian business navigating a new era** 새로운 시대를 찾는 아시아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

아시아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새로운 시대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잠재적인 파급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각 영역에서 발생할 새로운 도전과제들이다.

### **세계 질서: 다극화 세계에서 경쟁기업과 의존성 관리**

-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강화할 것:** 2022년에 IMF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글로벌 교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국가 안보 문제와 전략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IMF는 아시아의 정치인들이 국가간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피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간 교역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무역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1. 특수 공급망 관계를 형성하거나 2. 공급망의 핵심 단계들을 다변화하고 3. 핵심 부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재구성하며 4. 현지에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 **상호보완성을 이용할 것:** 아시아는 상호보완적인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매우 중요한 역내 무역 강자가 되었다. 상품이 오가는 일부 아시아 교역망은 현재 너무나 중요해서 무역 의존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지역 국가간 갈등은 공급망에 치명적이다. 예를들면, 2021년에는 호주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루트에서만 59%의 철강 교역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를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술 플랫폼: 지식 흐름의 장벽 속에서 혁신 촉진

아시아의 기업들은 부문 간의 사업 기회들을 확장하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풀을 수입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역량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중요한 기술에 접근할 것:** 아시아는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외부 기술의 의존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기술은 가장 강력한 전략 상품이며, 아시아는 핵심 기술 대다수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에서 창출된 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기술 해결책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술의 수출입은 앞으로 더 어려울 전망이다.
- **혁신속에 도약할 것:**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면서, 아시아는 혁신적 도약을 지속하기 위해 아시아의 규모와 빠른 속도를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시아 산업은 가전 및 산업 전자제품,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제조 역량에 뛰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분야로 빠르게 스며들어갈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첨단 컴퓨팅, 클린 에너지 그리고 양자 기술 분야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 인구 통계학적 힘: 고령화에 맞선 생산성 증가와 산업화 추진

아시아의 인구구조는 대체로 경제발전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풍부한 노동 인구에 힘입은 엄청난 생산력에서 나온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 국가는 급격한 고령화 속에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인력 불일치 문제를 다룰 것:**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는 많은 노동력이 존재하며, 이론상 이들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과제는 편향된 근무지를 이동시키고, 지방 사람들의 생산성을 개발해서 지역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아시아 전역에 생산혁신을 주도할 것:** 아시아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자국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더 많은 디지털 해결책을 활용하거나, 생산성 관련 기술을 기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보유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있겠다.

### 자원과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확보와 탈탄소화

아시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심하다.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9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또한 아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맞이할 때조차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주요한 과제가 있다.

-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할 것: 새로운 시대에도 화석연료의 수요는 두가지 이유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아시아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여전히 OECD 평균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세계 어느 곳보다 아시아의 경제는 제조업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McKinsey Energy Solution에 따르면, 아시아의 산업은 2021년에 전세계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57%를 차지했다. 산업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아시아는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에너지 수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 탈탄소화를 추구할 것: 아시아의 기업들은 청정 에너지 혁신을 발견하고 투자할 상당한 기회가 있다. 이들은 또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해결책을 고안할 능력도 있다. 에너지 효율성은 탈탄소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자본화: 재정 스트레스 속 자본동원

잠재적으로,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자본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어려운 거시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쉽지 않다. 다음은 아시아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가지이다.

- 금융 및 자본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 아시아의 금융 및 자본 시장은 아시아 산업이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자본수익률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낮다는 것과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금융 중심지 외에 많은 아시아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어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한다.
- 재무제표를 강화할 것: 불확실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진보된 회복 탄력성과 리스크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에 아시아의 많은 기업과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기업들은 재무 상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핵심 경제 지표를 확인하거나, 충분히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거나 리스크 관리 방법을 테스트하고 보강해야 한다.

번역: 전성엽

맥킨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5% 근접' 미국채 금리에 위협받는 경제 연착륙 기대

#### 미국채 10년물 5% 전망에 세계 채권시장 매도세 심화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 급등 여파로 미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위협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1년여 사이 기준금리 상단을 0.25%에서 5.5%로 공격적으로 올린 것은 경기 둔화를 통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고 장기 채권금리를 밀어 올리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 속도는 연준의 기대를 벗어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